



**[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해 왔다. 제도는 있으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제도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일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해,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11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약 33%를 지원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월 보수 상한선을 125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지원 수준도 확대키로 했다. 2월 말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 개 사업장, 82만 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수준 확대는 물론 현장 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해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

기본소득(basic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citizen’s income)은 가계(자산) 조사, 기여금, 노동 요구 등이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그 핵심적 특징으로 한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 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복지국가들에서 낭비되는 사회복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과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해체한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돈’을 위하여 일하는 노동자를 일에서 해방시키고, ‘가치’ 중심적 노동자로 변모시킬 계기를 제공한다.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과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패러다임 모두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기초한다. 아프리카 대륙 남서부에 작은 나라 나미비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있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만 2년 동안 이곳 주민들에게 일인당 매월 100나미비아달러(한화로 약 1만5천 원)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공식적으로는 2009년 말 끝났지만 이후에도 일인당 80나미비아달러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빈곤 문제가 급격하게 개선되었다. 기본소득의 주요 비판 논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다간 ‘놀고먹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이다. 하지만 나미비아에서는 그러한 예상과 달리 경제활동 인구가 오히려 늘어났고,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자영업을 포함한 소규모의 사업들이 활기를 띠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기도 했다. 내수 경기가 좋아진 것이다. 이 실험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의 경제 효과를 증명해냈다.

**<논제 I >**

제시문 [가]~[라]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논제 II >**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 [라], [마]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30점]

**I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공공 의료기관은 재투자를 위한 이익 추구 외에도 전문적 의료서비스 자원을 의료 취약 계층에게도 분배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공공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크게 일반인과 무상진료 대상자로 나뉜다. 이중 무상진료 대상자는 경제적 약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보훈대상 등 공익을 위해 보호해야 할 의료취약 계층이 주를 이룬다.

가상의 공공 의료기관인 [갑]이 있다고 가정하자. [갑]은 일반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람당 하루 평균 5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무상진료 대상자에게는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무상진료 대상자를 진료하면 하루 20명까지는 한 사람당 3만원, 20명을 초과하면 초과한 인원수에 따라 한 사람당 2만원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한편 [갑]은 분배 정의의 실천을 위해 무상진료 대상자의 비율을 반드시 전체 환자의 2/3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인을 하루에 30명 이상은 진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갑]은 의료진 수의 제약으로 무상진료 대상자와 일반인을 모두 합하여 하루에 150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논제 III >**

[갑]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무상진료 대상자와 일반인 환자의 수가 충분히 많다고 가정할 때, [갑]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상진료 대상자를 하루에 몇 명 유치할 것이며 그때의 하루 수익은 얼마인지를 풀이 과정과 함께 제시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40점]